

예술가 14명이 펼쳐내는 ‘사이의 무대’

27-28일 ACC 시즌 예술인 성과 발표 공연

‘이상과 현실, 정준과 노년, 삶에 대한 희망과 아쉬움.’ 전국에서 선발된 14명의 예술가들이 저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창작해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의 성과 발표 공연 ‘사이의 무대’가오는 27-28일 예술극장로 비와 아틀리에에서 펼쳐진다.



1년여간 여성 담은 다양한 장르 작품 선봬

이번 무대는 올해 ‘ACC 시즌 예술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ACC가 ‘제작극장’으로서 예술인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ACC 시즌 예술인’은 창·제작 기반의 공연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인에게는 지속적인 무대 경험과 창작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1차 모집에는 79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레퍼토리 공연(4명), 어린이 공연(3명),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1명) 분야에서 총 8명이 선정됐다.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총 14명이 ‘ACC 시즌 예술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8명이 지역 예술인으로, ACC의 지역 기반 창작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들은 1년여간의 리서치, 멘토링, 연습, 제작 과정을 거쳐 ACC의 창·제작 환경 안에서 작품을 완성했다.

‘사이의 무대’는 ‘ACC 시즌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한 14편의 공연을 레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1인극 퍼레이드다. ACC 아틀리에와 극장 로비를 무대로 2일간 총 14편의 공연이 이어지며, 관객은 시간표에 따라 다양한 작품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

출연자는 이승택·김여름·남선희·이지은·최유리·이정진·박미영·윤아진·김혜정·김은숙·김혜성·박두수·이길한·지정

남이다. 각 작품은 공연자 개개인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담고 있으며 음악극, 연극, 이미지브 시어터, 오브제극, 인형극, 무용극 등 장르 또한 다양하다.

특히 일부 작품은 공연의 형식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관객과 예술가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더욱 밀도 높은 예술적 교감을 유도한다.

김상우 전당장은 “‘사이의 무대’는 ACC가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제작 생태계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앞으로도 ACC는 지역 기반 예술인들이 창작자자자 등록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최명진 기자

새해 맞이 남도 소리·춤으로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의 향연’ 공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도의 소리와 춤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하는 토요상설공연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묵었던 한 해를 털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은 각기 다른 악기의 즉흥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는 기악합주 ‘남도시나위’로 문을 연다.

이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통해 다리 다친 제비를 치료해 준 흥보와 은혜를 갚기 위해 박씨를 물고 다시 찾아오는 제비의 여정을 풀어낸다. 무대에는 강선영류 태평무와 남도민요 ‘새타령’도 함께 오른다. 후반부에는 다양한 장구 가락과 구성을 보여주는 ‘장구춤’, 여러 진법놀이와 개인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사물놀이 ‘판굿이’ 이어지며 공연의 흥을 더한다.



“외비지 정길(육사), 현비 읍인불계길(구오), 비지무수흉(상육)”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41강〉8. 지수사(水地比)下

비괘(比卦) 육사의 효사는 ‘외비지, 정길’(外比之 貞吉)이다. 즉 ‘밖에서 친함이 있으니 바르고 길하다’는 의미이다.

사효는 외쾌의 가장 아랫자리의 음위의 음효로 유순하다. 상응해야 할 초육과는 감응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에서 친비의 상대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괘의 주효로서 강건중정의 구오와 친비하니 구오를 따르려는 진실히를 보여야 한다.

‘효사의 외(外)’라는 것은 구오를 가리킨다. 육사와 구오는 서로 상비(相比)하고 육사가 내(內), 구오가 외(外)이다. 구오는 강건중정(剛健中正)의 현군(賢君)으로 오음(五陰) 중에서도 특히 육이와는 정응(正應)하고 육사와는 상비(相比)해 정이 깊고 친하다.

구오는 오히려 멀리 있는 육이보다 가까이 있는 육사와 더욱 친밀함이 있다. 그래서 ‘외비지’라고 육사가 친하려고 구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오히려 구오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육사는 아무리 구오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신하의 도를 지키고 예와 정도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상전(象傳)에서는 육사와 구오의 관계를 ‘밖으로 현명한 군(君九五)을 비롯한 현인들과 친한 것은 위를 따라 가는 것’이라고 해 ‘외비어현 이종상야’(外比於賢 以從上也)라 말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육사(※각주 = 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높은 자리로 옮기는 영예가 있고 대로(道遷)의 정조가 있다)에 대해서는 조대에서 이를 득한다(進取書臺得利/ 진취대득리). 서속은 나이가지 유위함에 마침내 지기의 힘을 얻어 행함에 이루지 못함이 없다(出而有爲得知己之力而行無不勝/출이유위다득지기지력 이행불수). 이를 얻으면 외부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때로서 좋은 사람을 만나며 외근직이 좋고 유학을 간다. 상처를 한번 받았지만 출출 털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 밖으로 나가는 때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해 나가면 좋다. 손윗사람을 따르는 것이 길하니 모든 일을 손윗사람과 상의해 추진하면 길하다. 그러나 윗사람으로부터 친함이 있어도 친비의 정도(正道)를 잊으면 안된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을 관장하는 책임자에게 직접 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잘된다.

사업, 소망, 거래, 운세 등에서 손윗사람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추진하면 입신(立身)하거나 이득을 볼 일이 많다.

거래, 매매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먼저 원해 주위의 장세(場勢)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에 응하기 위해 이쪽에서도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훈인, 혼담에서는 육이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사돼도 남자 쪽에 의외의 여자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구오가 오음(五陰)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상이기 때

문이다. 육사의 때에 혼인은 여자는 바른 배우자이지도 않은 남자와 사귀면서도 자신은 그것에 만족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임태는 편안하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출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萃) 도회지로 나갔으며 분실물을 찾게 된다. 이전, 여행 등도 무난하다. 병은 더욱 악화되니 의사를 바꾸어 보면 더 나아질 수 있다.

‘모고판의 운기여하’를 입서해 육사를 얻은 ‘실점예’에서 ‘육사는 구오의 군족에 있고 군에 충절(忠節)을 다하므로 군총(君寵)을 얻고 음양친비(陰陽親比)하니 크게 승천(陞遷)의 영화가 있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예’에서 ‘자랑공장의 부지를 정리하는 일을 입찰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돈을 벌 수 있겠는가?’에 대해 입서해 육사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단했다. 비괘는 일양 오음(一陽 五陰卦)로 구오가 입찰 의뢰회사이고 오음들은 입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음 중 유력한 낙찰자는 육사로서 구오와 응양상응(陰陽相應)하니 평소에 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찰 받고자 하는 문점자는 육사의 흘을 얻어 효사에 ‘외비지 정길’(外比之 貞吉)이라 했으니 당당하게 구오인 입찰자를 만나 교제하면서 부딪치는 것이 좋고, 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육이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어 입찰가를 가히 높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육이를 제치고 구사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입찰가를 높이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계가 택지체로 퀘파(萃卦)는 모이는 괘이니 낙찰되면 사람과 재물이 많이 모여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점자는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 받았고 작업하는 동안 퀘파의 괘상처럼 날씨는 흐르고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완료해 상당한 돈을 벌었다.

비괘 구오의 효사는 ‘현비, 왕용상구실전금, 읍인불계길’(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誠 吉)이다. 즉 ‘친함을 나타낸다. 왕이 사냥을 나가 세 방향으로 금수를 몰아가되 한 방향을 터주어 금수를 놓아준다. 읍인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는 의미이다.

구오는 비괘(比卦)의 성괘주효이면서 주제주효로서 비(比)의 데를 몸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실천하는 군위(君位)이다. ‘현비’(顯比)라는 의미는 비도(比道)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으로 군위의 입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공명정대하게 친화하고 편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삼구’(三驅)라는 의미는 왕이 사냥을 할 때 일면을 터주고 삼면에서 금수를 몰아감으로써 도망가는 금수를 놓아주는 군주의 자비(慈悲)와 여유스러운 마음을 말한다.

즉 왕이 모든 백성, 신하들과 친화하려 하나 친비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끌려오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친화하려는 군주의 태도를 말한다. 이러하면 읍인 백성들도 경계하지 않고(邑人不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 길하다는 의미이다. 상전에서도 이를 ‘사역취순’(舍逆取順)이라 해 ‘따르는 자는 취하고 거스리는 자는 버린다’고 말하고 이러한 바가 중용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서 ‘상시중야’(上使中也)라고 했다. 구오의 때는 다양하게 받아들이며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으니 길하다. 경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과 친밀함이 절정에 다다른다.

점사에서 입서해 구오(※각주 = 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오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높은 자리로 옮기는 영예가 있고 대로(道遷)의 정조가 있다)에 대해서는 조대(周易)에 유선역후순지후 구모유득무왕불리(有善則後順而名難成/ 즉상무원인 이명난성) 서속은 먼저는 거슬림이 있으나 뒤에는 순조로운 기쁨이 있어 구하고 괴하는 바가 얻어져는데마다 이롭지 않음이 있다(則有先逆後順之失求讓有得無往不利/ 즉유선역후순지후 구모유득무왕불리)를 득하면, 만인이 평화롭게 잘 따르고 아주 평온한 때이다. 그러나 무리하거나 육심 부리면 모두 놀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거래, 소망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80,90%에서 만족해야 한다.

발생하는 이익 모두를 내 것으로 취하면 안되고 일부는 상대에 배려해야 한다. 만일 모두를 취하려다가 육심이 희근(禍根)이 돼 전제를 다 잃을 수 있다.

훈인도 좋고 임태도 순조롭다. 이전과 여행도 무사하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출인은 숨어버려 찾기 힘든 본인의 생각을 바꿔 돌아올 수 있고 분실물을 집안에서 나올 수 있다. 병은 나이든 부인의 위장병은 감변곤(坎變坤) 해 쾌유하나 다른 병은 육총파로 변해 위독해 힘들다. 물가는 평지로 돌아가 저가(低價)에 마문다.

‘모인의 관직 임용 여하’를 입서해 구오를 얻은 ‘실점예’에서 ‘구오는 인군이 모든 백성과 친하게 지내는 때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육심부리지 않으면 길한 때이니 당연히 임용된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구오의 때에는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수용하고 대로(道遷)처럼 영역이나 경계를 두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과 친밀한 것이 좋다. 특히 선거에 길하다. 읍식점을 하면 세 가지 이상(三驅) 여러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것이 좋고 집을 매각하려면 모든 부동산에 내놓으면(不識) 빨리 이뤄진다.

비래 상육의 효사는 ‘비지무수 흉’(比之无首 凶)이다. 즉 ‘친화하려는데 땅을 만한 우두머리가 없어서 흉하다’는 의미이다.

상육은 비래의 가장 높은 자리이다. 상육은 구오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섭겨야 하나 구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니 섭길 수 없다. 이를 무수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당선될 수 있으나 대간(大良)의 상으로 변했으나 이제 친함은 다했고 끝났다. 당선된 자리에 있는 동안은 도와주는 무리가 없어 형세가 위태롭고 이끌어주는 이가 없어 명을 이루기 어려우며, 형국(荆棘)하는 재앙으로 인해 인정이 막혀 다했고 끝났다. 이를 비자무수(比之无首)라 하였으나 친화를 받은 사람은 정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모인의 당선 여하’를 입서해 상육은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하기를 ‘비래는 땅과 물이 제자리에 있고 서로 친함이 있는 괘인데, 상효를 만나면 대간(大良)의 상으로 변했으나 이제 친함은 다했고 끝났다. 이를 비자무수(比之无首)라 하니 정탁을 받은 사람은 정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인의 청탁 수락(受諾) 여하’를 입서해 상육은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하기를 ‘비래는 땅과 물이 제자리에 있고 서로 친함이 있는 괘인데, 상효를 만나면 대간(大良)의 상으로 변했으나 이제 친함은 다했고 끝났다. 이를 비자무수(比之无首)라 하니 청탁을 받은 사람은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육은 비래의 종국으로 교외(郊外)에 해당하는 비의 때에 있어서 교제할 마음이 부족해 단사(彖辭)의 후부흉(後夫凶)의 후부(後夫)에 해당한다. 즉 비의 때를 놓쳐 버려 친비(親比)할 시기도 아니고 교제할 사람도 없다.

상전에서는 ‘도와주고 친밀함이 없는데 어찌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라 해 ‘비지무수 무소종야’(比之无首 无所終也)라 말한다.

새해 맞이 남도 소리·춤으로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의 향연’ 공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도의 소리와 춤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하는 토요상설공연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묵었던 한 해를 털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은 각기 다른 악기의 즉흥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는 기악합주 ‘남도시나위’로 문을 연다.

이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통해 다리 다친 제비를 치료해 준 흥보와 은혜를 갚기 위해 박씨를 물고 다시 찾아오는 제비의 여정을 풀어낸다. 무대에는 강선영류 태평무와 남도민요 ‘새타령’도 함께 오른다. 후반부에는 다양한 장구 가락과 구성을 보여주는 ‘장구춤’, 여러 진법놀이와 개인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사물놀이 이 ‘판굿이’ 이어지며 공연의 흥을 더한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전)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